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Keun Won Park 박근원

Shin Yang

Abstract

Professor Keun Won Park can be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heologians in the 1980s for his Korean practical theology and worship. Until 1980, Korean practical theory was infertile. Korean churches simply followed the ways of Western churches, including the worship style. During the 1960's and 70's, Koreans were exercising movements of the Holy Spirit recklessly, and subsequently, many churches did not have lively worship services, and many worshipped without any formality. It was Professor Park who originally introduced the worship form and various methods of worship. Moreover, he upgraded Korean practical theology by implanting the idea that Korean practical theology is not learned only through experience, but also through education.

들어가는 글

한국 실천신학 분야에 있어서, 또한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박근원 교수일 것이다. 1980년대까지 신학적 깊이가 얕은 한국에서 실천신학의 분야는 거의 미개척지와 같은 곳이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예배는 일제시대 이후로 서양교회의 전통과 예배형식을 보존해 왔었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무분별한 성령운동과 부흥회에 깊이 실취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의 예배란 생명력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는 율법적 예배와 형식없는 예배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에 미국에서 현지 목회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원 교수는 한국 신학계와 교회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예배의 양식들과 예배의 원래적 전통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실천신학의 분야를 단지 경험적 내용이 아닌, 학문적 자리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예 배 - '오늘의 예배론'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운동 - 박근원 교수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에큐메니칼 운동 즉 세계교회의 일치운동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일치운동의 몸부림 속에서 각 교단과 각

나라의 예배에 대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찾게 되었고, 좀더 풍요로운 예배전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수확 중 하나가 ‘리마문서’이다. 특히, 교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종말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현재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가고 있으므로 예배갱신 운동은 현재 교회개혁 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부활의 축제 - 박근원 교수는 예배를 장자크 폰 알멘의 주장과 같이 메시아적인 잔치(Messianische Fest), 즉 부활의 축제라고 생각한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부활사건 자체도 역동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축하하는 예배 역시 역동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교회의 아픈은 축제적인 예배의 성격이 희석되거나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와 예배 - 현재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기 어려운 이유를 박근원 박사는 예배와 민속의 축제가 이질적으로 인식 되는데서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예배의 축제적인 예배의 시도를 위해 민속의 절기와 교회의 절기에 축제적 표현을 하는 예배를 시도하라고 권유한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예배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상황문화를 창조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제는 예전처럼 예배를 사제나 예배 인도자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온 회중의 참여 형태로 진행하며 시청각 문화와 같은 육감 전체를 동원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한다.(민속예배)

성만찬 - 우리 개신교 전통 속에서 잃어버린 본래적 예배의 모범인 성만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박근원 박사는 예배의 가장 중심적 두 개의 축을 설교와 성만찬으로 정의한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한국문화적 표현 - 세계교회 모임의 예배에 참여한 박근원 박사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고유한 악기에 맞추어 자기 나라의 노래 가락과 갖가지 춤이 어우러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가운데 예배와 문화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인식한다. 특히 현재 그리스도교 예배는 한마디로 지중해 문화의 산물이다. 서방교회의 예배는 로마의 문화를 표출한 것이고, 동방교회의 예배는 비잔틴 문화의 산물이다.

이에 박근원 교수는 유동식 교수의 풍류신학과 맥을 같이하는 우리 조상들의 하늘님 제사 전통과 현 우리 교회의 예배와 연관시키려 시도한다. 그는 우리 조상들의 하늘님 제사는 유교전통의 조상제사와도 다르고 기복과 치유 위주의 민간신앙의

제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제사 전통속에 온 마을이 하나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모습을 교회의 예배 가운데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설교 - 오늘의 설교론을 중심으로

박근원 교수는 오늘의 설교 상황을 ‘위기의 상황’으로 간주한다 : 과도한 설교, 성서적 설교의 결핍, 그리고 율법적인 형태로 ‘~을 해야한다’는 명령으로 복 받고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설교.

설교는 시대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대의 정신사적 경향을 반영한다. 특히 설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또한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메시아적인 기쁨의 소식이고, 또한 해방의 언어’이다.

설교의 주제는 매 500 년마다 주제가 바뀌어왔는데, 20 세기까지는 수직적 의미에서 하나님, 교회, 개인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21 세기에는 세계의 선교를 통해 에큐메니칼 경향이 강조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오늘 날 수평적 설교신학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설교가 인간 삶 전체에 관심해야 하는 것과 그 시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구현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박근원 교수는 설교를 하나의 분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항상 전체 예배 속에서 설교를 보아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즉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교이지만, 이 설교는 역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서 모든 순서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선포의 한 제한된 방편일 뿐이다. 그런데 개신교의 선포활동에서 설교가 선포의 모든 것인 양 간주하고 실천해 온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박근원 박사는 반드시 설교와 성만찬이 함께 진행되는 온전한 복음의 선포를 강조한다. 또한 설교를 하는 본문의 선택은 교회력과 성서정과(Lectioary)에 맞추어서 진행함으로 예배적 통일성을 권면한다. 그래서 1990 년도 후반부터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를 발행하고 있다.

공헌



박근원 교수의 가장 큰 공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먼저 세계적인 예배와 실천신학의 흐름들을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안테나의 역할을 한 것이다. 서양에서 흘러온 한 부분의 예배 형식만을 고수하는 한국교회에게 세계의 다양한 예배들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예배적 본질-성만찬-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번째로 박근원 교수는 우리의 문화를 재해석 함으로 예배와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했고, 동시에 현 시대의 문화적, 상황적 감성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특히나 이러한 작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예배자료’라는 전 5 권의 예식서를 출간했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값진 자료이다.

나가는 글

박근원 교수의 지난 30년간 펴낸 책과 번역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출간했다. 그런데, 그 대다수의 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실천신학 분야의 많은 책들이다. 즉, 박근원 교수의 노력이 불모지와 같던 한국 내 실천신학 분야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가 깊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설교에 대해서도 전문적이지 않다. 선교에 대해서도 전문적이지 않다. 목회적 영역에서도 전공자들만큼 전문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박근원 교수만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예배 속에 담아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근원 교수는 제시하는 수많은 예배적 모델들과 내용들을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경동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 학문적 성과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회적 자료들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 학교에서 가르치던 예배의 신학이 바닷교회의 예배 현실로 반영이 되지 않는 데서 느꼈던 좌절감을 뛰어넘어, 그의 예배신학은 이제 모든 교회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Primary Resources

-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박근원 엮음, [새로운 예배자료] 전 5 권, 도서출판 진흥, 1994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대한기독교서회, 1993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대한기독교서회, 1980
 박근원, [오늘의 교역론], 대한기독교서회, 1982

- 박근원, [오늘의 예배학], 대한기독교서회, 1992
박근원, [교회력과 목회기획], 쿤란출판사, 2003
박근원, [현대신학 실천론], 대한기독교서회, 1998
박근원 엮음, [새로운 예배자료 21] 전 5 권, 대한기독교서회, 1998
박근원, [목회와 교회예식], 도서출판 진흥, 1997
박근원, [교회와 선교-현대인을 위한 신학강좌], 종로서적, 1988
박근원, [한국교회 성숙론], 대한기독교서회, 1986
박근원, [교역의 전문화 교육], 대한기독교서회, 1985
박근원 편집, [바람 물고온 사람들: 2004 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대한기독교서회, 2003
박근원 편집, [온땅의 새바람으로: 2003 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대한기독교서회, 2002
박근원 편집, [하늘에서 부는 바람: 2002 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대한기독교서회, 2002

